

카메라 앵글 속 인간의 어긋난 욕망이 보였다

함평군립미술관 ‘가상과 현실’

구성연·이정록·임안나·한성필
작가 4명 참여…내달 16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은 2023년 첫 번째 기획전으로 ‘FANTASIA_가상과 현실’전을 개최한다.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진작가 구성연, 이정록, 임안나, 한성필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인간의 어긋난 욕망과 전쟁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풍자하거나 생명의 근원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현실의 풍경에 이미지를 더하거나 연출된 장면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임안나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지속해서 다루고 있다. 잔인한 전쟁의 풍경을 동화적인 비유로 제작해 비극의 상처로부터 인류를 치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난해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원지·공터 등 예기치 못한 곳에 놓여 있는 폐부기의 초현실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구성연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으로 재현한 화려한 모란꽃을 통해 현대인의 욕망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형형색색의 달콤한 사랑으로 모란 모양의 꽃을 만들었다. 그리



구성연 ‘Candy r.03’



임안나 ‘Romantic Soldiers #13’

고 그것을 다시 사진으로 담아 인화했다. 사진 속의 꽃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점, 사람으로 만든 가짜 꽃이라는 점에서 보는 이의 허를 찌른다.

이정록 작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길 ‘산티아고’ 연작을 보여준다. 가톨릭이나 기독교 교인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탐방객들이 모여드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수놓은 수많은



한성필 ‘The Ivy Space’

빛의 흔적을 통해 역사 속의 생명체와 자연의 숭고함을 느끼게 한다.

한성필 작가는 건물 공사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을 소재로 작업한다. 가림막에 실물 크기의 건물 사진을 부착해 가상과 현실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함평군립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이 현대 사진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획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를 지역에 확산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전시공간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이나라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상반기 소장품 구입 공모

20~27일 등기우편 접수

전남도립미술관은 미술사적으로 가치 있는 소장품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소장품 구입 공모를 실시한다.

15일 전남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이번 공모 구입 대상 작품은 한국 근·현대미술 전개 과정 중 중요한 역할을 한 미술사적 대표 작품, 전남 미술사 맥락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작가의 대표 작품, 전남의 역사나 자연적 특징을 소재로 한 작품, 동시대 미술 경향을 이끌어가는 대표의 작품이다.

작가, 작품 소장자, 화랑, 법인 관련자 등 작품 소장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점, 화랑·법인은 최대 2점까지 판매 가능하다. 전남 출신 작가의 작품은 우대된다. 전

남에서 출생 또는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지역 대학(원)의 미술 관련 학과를 재학 또는 졸업했거나 전남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다.

도립미술관은 작품수집추천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 적정성 평가와 가격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27일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27일 등기 소인분까지 유효하고 기간 외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서류 및 공모 구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및 전남도립미술관 홈페이지(<https://artmuseum.jeon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ACC ‘직군 탐색’ 과정 수강생 모집

웹 소셜 기획자 등 7개

급변하는 문화예술 현장에 발 맞춰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신 직업의 전망을 알아보는 직군탐색 교육이 마련됐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등이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기획·경영·창작 등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향후 창업과 창작 활동에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23년 상반기 ACC 직군탐색’ 과정을 운영,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격주 수요일 ACC 문화정보원에서 7개 직종에 관한 설명과 함께 전망을 살펴보는 강의로 총 8회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문화예술분야 신직업 연구를 바탕으로 오디오북 내레이터,

음악산업 전문가, 문화예술 후원 매개 전문가, 전시테크니션, 공연(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융복합 문화기획자, 웹 소셜 기획자를 탐색 직업군으로 선정했다. 강사는 모두 이들 분야 현장 전문가로 구성했다.

수강 신청은 각 강좌마다 20명씩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직군탐색과정은 ‘콘텐츠 발굴·실행과정’과 ‘예술인 역량강화과정’으로 이어지는 ACC전문인 교육의 출발점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이번주 개봉영화

◇소울메이트=어린 시절 친구가 된 두 사람이 어른이 되며 겪는 관계의 굴곡을 그린 영화. 진한 우정은 소위 연애감정이라 불리는 것과 많은 부분 달랐다. 영화는 미소와 하은의 관계를 통해 어릴 적 친구 혹은 소중한 존재에게 느꼈을 법한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담아냈다. 민웅근 감독, 김다미·전소니 출연. 124분. 15일 개봉.



◇사점! 신들의 분노= 4년 만에 돌아온 ‘사점!’ (2019)의 후속작. 사점과 힘을 잃고 분노한 신들의 대결을 그린다. 신들의 힘을 갖게 된 빌리와 친구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슈퍼히어로의 삶을 즐기게 된다. 그러던 그들 앞에 잃어버린 힘을 되찾고자 그리스 여신 헤스페라와 칼립소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된다. 데이비드 F. 샌드버그 감독, 제커리 레비·아서 앤젤 출연. 130분. 15일 개봉.



◇플레인=비행기사고를 소재로 벌어지는 액션 스릴러물. ‘오래된 고물’이라는 승객 불만처럼 운항 고도에 오른 비행기는 악천후를 견디지 못하고 급박박질린다. 다시 안정권을 비행하듯 관객에게 일시 안도를 선사했다가 무장 괴한의 무자비한 총구 앞에 선 승객처럼 관객들을 다시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다. 장-프랑소와 리셰 감독, 제라드 버틀러·마이크 콜터 출연. 107분. 15일 개봉.



◇어떤 영웅=이란의 거장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의 신작. 금화가 든 가방 주인을 찾아줬다가 의도치 않게 파국에 휩쓸리는 남성의 이야기다. 선한 표정에 반면에 미소가 가득한 라힘은 좋은 일을 하고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꾸미는 데에는 서투르다. 대중 돌리던 이야기가 계획된 거짓말을 한 것처럼 큰 오해를 불러오고, 영웅과 범죄자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줄타기가 이어진다.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 아미르 자디디·모센 타나반데 출연. 128분. 15일 개봉.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